

老乞大 諺解에서의 意圖形의 崩壞 再論

金 完 鎮

I.

필자는 1976년의 拙著 〈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比較研究〉의 한 절에서 (145면에서 157면까지) 意圖形 ‘오/우’의 쇠퇴에 대하여 살핀 일이 있다. ‘오/우’로 대표되는 의도형의 형태가 단번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 ‘라’, ‘디’와의 결합이라는 제한된 환경에 있어서는 ‘으랴’, ‘으되’라는 전이 형태 속에 아직 그 잔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의 성립은 ‘오/우’의 원순성이 다음 음절의 모음으로 옮겨가 ‘라’를 ‘랴’로 ‘디’를 ‘되’로 변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급기야 ‘으랴’형은 사용이 끊어지고, ‘으되’쪽만이 조건문의 어미로 남아 있는 형편이지만, ‘으되’의 ‘으’가 살아 있는 것은 ‘있다’에 결합되었을 때의 ‘있으되’와 과거형 시제 어미 ‘었’에 연결되었을 때의 ‘었으되’(먹었으되, 잡았으되, 하였으되 등과 같은 경우)에 국한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자음계 용언 어간과의 결합에 있어서도 ‘으’의 개입 없이 ‘먹되’, ‘잡되’, ‘듣되’와 같이 어간에 ‘되’가 직접 연결되어 쓰이게 되어 있다. 분명 ‘되’의 원순성에 옛날의 ‘오/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의도형의 ‘오/우’의 문법적 기능이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1976년에 있어서도 필자는 번역노걸대나 노걸대언해 상하권의 전문면을 두루 참조해야 함을 강조했었지만, 그 당시의 저술에서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관련례들을 제시하고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관찰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중복되는 경우에도 실례들을 모두 등록시켜 놓고, 이론을 앞세우지 않고 예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참조 문헌의 폭을 종으로 넓혔다. 전자에는 주로 박통사와의 횡적인 대비라는 명제가 근거에 깔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노

결대의 언해의 전개라는 종적인 축을 좇아 기영판 노결대언해와 중간노결대 언해의 자료를 보충 사용하였다.

같은 명제를 가지고 같은 자료에 입각하여 많은 다른 것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등장시켜 놓고 관찰하였을 때와 지금처럼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등장시킨 가운데 관찰을 진행시켰을 때 사이에는 보이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에 기대하며, 이러한 미시적 연구가 문헌 연구의 필요한 과정임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먼저 '오/우'에 관련된 예들을 출현 순서대로 제시한 다음 단어별로 관계어형들을 정리하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다시 구분하여 기록할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비교 대조하며 관찰되는 사실들을 정리 기술할 생각인데, 많지는 않지만 전자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간은 있을 것으로 믿는다.

Ⅱ. 자료의 점검

의도형의 실현 양상을 정밀 점검하기 위하여 의도형의 변화와 관계된 문면들을 텍스트에서의 실현 순서대로 우선 제시하기로 하거니와, 다만 문법적으로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호노라'와 같이 지금의 관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은 여기서 제외했다. 또한 같은 '오/우'의 형태를 가졌지만, 경우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 인식하는 일이 있으나, 여기서는 외형에 중점을 두며 그런 차이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가령 예시하면 '드론, 드름, 드로라, 드로마...' 등을 같은 부류로 하여 다루었다. 물론 사동의 '오/우'까지를 혼동하지는 않았다. 얼마간 의도형과는 관계가 없는 예들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이 글의 뒷 부분에서의 논의에 이용될 것들이다. 몇개 되지 않지만 다른 것들과의 구별을 위하여 일련 번호 앞에 '△' 표를 붙이기로 한다.

일련 번호는 () 안에 묶어 제시하고 문례들을 그 다음에 짝지워 적되, 이른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대비로 기본을 삼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箕營版 老乞大諺解와 重刊老乞大諺解를 추가하기도 한다. 간략을 위하여 각각 A, B, C, D로 표시한다. 끝에 上下卷의 차이와 面數를 < >에 넣어

밝힌다.

- (1) A. 내 高麗 王京으로서브터 오라 <上 1a>
 B. 내 高麗 王京으로서브터 오라 <上 1a>
 D. 내 朝鮮人 王京으로 조차 왔노라 <上 1a>
- (2) A. 내 이돛 초하룻날 王京의셔 떠나라 <上 1a>
 B. 내 이돛 초하룻날 王京셔 떠난노라 <上 1a>
- △ (3) A. 이 버디 곧 귀니 어제 ㄹ 오다 <上 1b-2a>
 B. 이 벗이 곧 귀니 어제 ㄹ 오니라 <上 1b>
- (4) A. 쯤 었디 漢語 닐오미 잘 하노뇨 <上 2a>
 B. 쯤 었디 漢語 니름을 잘 하노뇨 <上 2a>
- (5) A. 내 퇴학당의셔 글 빅호라 <上 2b>
 B. 내 漢학당의셔 글 빅호라 <上 2b>
 C. 내 漢학당의셔 글 빅호라 <上 2b>
 D. 내 中國人 사름의 學堂에서 글을 빅호라 <上 2b>
- (6) A. 論語 孟子 小學을 닐고라 <上 2b>
 B. 論語 孟子 小學을 닐그와 <上 2b>
- (7) A. 그 사름 하야 글 외오요던 <上 4a>
 B. 그 사령 하여 글 외오던 <上 4a>
 D. 그 사름으로 하여 글 외오되 <上 4a>
- (8) A. 내 드로마 <上 5a>
 B. 내 드르마 <上 4b>
- (9) A. 사괴는다 사르미 와 닐오던 <上 8a>
 B. 서르 아는 사름이 와 니르되 <上 8a>
- (10) A. 내 더 사괴는 사르미 일즉 닐오던 <上 9a>
 B. 내 더 아는 사름이 일즉 니르되 <上 8b>
- (11) A. 훈 념이 이쇼던 <上 9b>
 B. 훈 店이 이쇼던 <上 9a>
 C. 훈 店이 이쇼던 <上 9a>
 D. 훈 店이 이시니 <上 9a>

- (12) A. 네 널옴이 올타 — 네 널옴이 내 뜰과 궂다 <上 11a>
 B. 네 니름미 올타 — 네 널옴이 맞치 내 뜻과 궂다 <上 10a>
 C. 네 널롬이 올타 — 네 널옴이 맞치 내 뜻과 궂다 <上 10a>
 D. 네 니롬이 올타 — 네 니롬이 맞치 내 뜻과 궂다 <上 10a>
- (13) A. 네 사흐논 답피 <上 19b>
 B. 네 싸흐논 답히 <上 17b>
- (14) A. 물윗 ㄱ장것 글후미 훈다위만 헝거든 <上 19b>
 B. 물윗 홀키 훈다위만 헝거든 <上 18a>
- (15) A. 네 저그나 더로덕 엇더^ㅎ뇨 <上 23b>
 B. 네 저기 더로미 엇더^ㅎ뇨 <上 21b>
 C. 네 적이 더름이 엇더^ㅎ뇨 <上 21b>
 D. 저기 돈을 덜미 엇더^ㅎ뇨 <上 21a>
- (16) A. 물돌히 분외로 머구를 비브르려니와 <上 24a>
 B. 물돌히 分外로 머거 비브르려니와 <上 22a>
- (17) A. 그리 호마 <上 26a>
 B. 그리 헝마 <上 23a>
- (18) A. 법다이 핑궂로물 도히 헝엇느니라 <上 26b>
 B. 법다이 핑궂기물 도히 헝엇느니라 <上 24a>
- (19) A. 내 드로니 얏팍 길 어렵다 헝느다 <上 26b>
 B. 내 드르니 얏피 길히 머흐다 헝더라 <上 24a>
- (20) A. 조심호미사 도^ㅎ니라 <上 27b>
 B. 조심호미 도로혀 도^ㅎ니라 <上 24b>
 C. 조심호미 도로혀 도^ㅎ니라 <上 24b>
 D. 조심홀미 마치 올^ㅎ니라 <上 24b>
- △(21) A. 성명은 상티 아니^ㅎ똥더라 <上 30b>
 B. 일즙 性命은 상티 아니^ㅎ똥더라 <上 27b>
 C. 일즙 性命은 상티 아니^ㅎ똥더라 <上 27b>
 D. 일즙 性命은 상치 아니^ㅎ똥더라 <上 27b>
- (22) A. 널오미 올타 <上 31a>
 B. 널오미 올타 <上 28a>

- C. 널음이 올타 <上 28a>
 D. 니르미 올타 <上 28a>
- (23) A. 조심호미 도흐니라 상벳 말소매 니로덕 <上 34a>
 B. 조심호미 도로혀 도흐니라 常言에 널오덕 <上 30b>
 C. 조심호미 도로혀 도흐니라 常言에 널오덕 <上 30b>
 D. 조심호미 조흐니라 常言에 니르되 <上 30b>
- (24) A. 내 물기리 닉디 물호라 <上 34b>
 B. 내 물깃기 닉디 못호와 <上 31a>
 C. 내 물깃기 닉디 못호와 <上 31a>
 D. 내 물깃기 닉디 못흐니 <上 31a>
- (25) A. 그리호마 <上 35a>
 B. 그리햏자 <上 31b>
 C. 그러면 <上 31b>
- (26) A. 내 너드려 ㄱ르츄마 <上 35b>
 B. 내 너드려 ㄱ르치마 <上 32a>
- (27) A. 일즉 비호디 아니호니 <上 36a>
 B. 일즉 비호디 아니햏엇더니 <上 32b>
- (28) A. 내 그저 널오덕 <上 37a>
 B. 내 그저 널오덕 <上 33b>
 B. 내 그저 널오덕 <上 33b>
 B. 우리 그저 니르되 <上 33b>
- (29) A. 우리 그저 이 뒗터혜 가 뒗든노미 아니 도흐녀 <上 37b>
 B. 우리 그저 뒗동산의 가 뒗보기 도터 아니햏랴 <上 33b>
- (30) A. 내 물 자바쇼마 <上 37b>
 B. 내 물 자바실 켜시니 <上 33b>
- (31) A. 큰형님 니르샤미 올흐시이다 <上 41b>
 B. 큰형의 니름이 올타 <上 37b>
- (32) A. 머구미 브르녀 아니 브르녀 <上 42b>
 B. 머금이 브르냐 아니 브르냐 <上 38b>
- (33) A. 머구물 따차든 또 그릇돌 설어져 오라 <上 43a>

- B. 먹거든 쏘 그릇돌 서러저 오라 <上 39a>
- (34) A. 골픈 제 훈 입 어더 머구미 브른 제 훈말 어듬두곤 더으니 <上 43b>
 B. 골픈 제 훈 입 어더 먹으미 브른 제 훈말 어듬두곤 나으니라 <上 39b>
- (35) A. 만리에 일후를 음플디니라 <上 44a>
 B. 萬里에 일흠을 던코져 흠이라 <上 40a>
 C. 萬里에 일흠을 던코져 흠이라 <上 40a>
 D. 萬里에 일흠을 전코져 흠이라 <上 40b>
- (36) A. 짐 시로물 ㅁ숯 골와 <上 45b>
 B. 짐 싯기 못춤애 미츠면 <上 41a>
 C. 짐 싯기 못춤애 미츠면 <上 41a>
 D. 짐 시르미 죠타 짐 싯기 못춤애 다드락면 <上 41b>
- (37) A. 오~~느~~룬 닛고 일즙 지달싸디 아니호라 <上 46a>
 B. 오~~느~~은 닛고 일즙 지달싸디 아니호라 <上 41b>
 C. 오~~느~~은 닛고 일즙 지달싸디 아니호라 <上 41b>
 D. 오~~느~~ 편백히 닛고 일즙 디달싸지 못~~호~~였다 <上 42a>
- △(38) A. 우리 둘히 무르라 가져 <上 47a>
 B. 우리 둘히 무로라 가자 <上 42a>
 C. 우리 둘히 무로라 가자 <上 42a>
 D. 우리 둘히 몬져 무르라 가자 <上 43a>
- (39) A. 네 다룬 더 잘 더 어드라 가라 <上 47a>
 B. 네 다룬 더 잘 더 어드라 가라 <上 42b>
 C. 네 다룬 더 잘 더 어드라 가라 <上 42b>
 D. 네 다룬 더 잘 더 어드라 가라 <上 43a>
- (40) A. 우리를 흐룻밤 재게 호미 엇더~~호~~뇨 <上 47b>
 B. 우리를 흐룻밤 재게 흠이 엇더~~호~~뇨 <上 43a>
 C. 우리를 흐룻밤 재게 흠이 엇더~~호~~뇨 <上 43a>
 D. 우리로 호여 흐룻밤 재오미 엇더~~호~~뇨 <上 43b>
- (41) A. 闊에서 뿌미 언매나 갓가온가 먼가 <上 48b>
 B. 闊에서 쁨이 언매나 머뇨 <上 43b>
- (42) A. 闊에서 뿌미 일빅보 싸만 훈 더 <上 48b>
 B. 闊에서 쁨이 일빅보 싸흔 훈 더 <上 43b>

- (43) A. 우리를 하룻밤만 자게 호더여 <上 49b>
 B. 우리로 하여 하룻밤만 재라 <上 44b>
- (44) A. 주인 형님 닐오미 경히 올타 나도 드로니 올히 여기 면호를 거두디 못
 하다 하노다 <上 54b>
 B. 주인 형아 니름이 경히 올타 나도 뎡보니 올히 여기 田禾를 거두디 못
 하다 하더라 <上 54b>
- (45) A. 너희 주어 머규마 <上 55b>
 B. 너희를 주어 먹이마 <上 50a>
- (46) A. 이러면 형님 닐우미 올타 <上 56b>
 B. 이러면 형의 닐음이 올타 <上 50b>
 C. 이러면 형의 닐음이 올타 <上 50b>
 D. 主人 형의 니름미 올타 <上 51b>
- (47) A. 내 앓가 ㅈ 좁 씨와다 — 내 문져 가 더 들흘 ㄹ라 와 자게 호리니
 <上 57b>
 B. 내 앓가 ㅈ 좁 씨아다 — 내 문져 가 더 들흘 ㄹ라 와 자게 홀 씨시니
 <上 52a>
- (48) A. 물읏 우리 짐들흘 설어주물 지그가 하교 <上 59a>
 B. 물읏 우리 짐들흘 收拾하기를 극진히 하교 <上 53a>
 D. 行李를 收拾하여 잘 짐 시르되 (A나 B와 같은 부분이 아님) <上 53b>
- (49) A. 가져오게 호마 <上 56b>
 B. 가져오게 하마 <上 51a>
- (50) A. 우리 떡니 머구덕 엇더하노 <上 60b>
 B. 우리 그저 떡니 떡음이 엇더하노 <上 54b>
- (51) A. 우리 츄니 머구리라 <上 63b>
 B. 우리 그저 츄니 떡을이라 <上 57b>
- (52) A. 우리 ㅈ 예 오라 <上 68b>
 B. 우리 ㅈ 여귀 오라 <上 62a>
 D. 우리 ㅈ 여귀 앗노라 <上 62b>
- (53) A. 내 너 위하야 님자 어더 다 포로마 <上 69b>

- B. 내 너를 위하야 남자 어디 다 풀게 하마 <上 62b>
- (54) A. 머규물 7장 몬하야 이시니 <上 69b>
 B. 먹키기를 7장 못하야시니 <上 63a>
 C. 또 먹이기를 잇곳 못하니 <上 64a>
- (55) A. 내 널오미 올타 <上 70a>
 B. 내 널음이 올타 <上 63b>
 C. 내 널음이 올타 <上 63b>
 B. 내 니락미 올타 <上 63a>
- △(56) A. 더기 무르라 가마 <上 70b>
 B. 더기 무로라 가리라 <上 63b>
 C. 더기 무로라 가리라 <上 63b>
 D. 내 저기 무르라 가차 <上 64b>
- (57) A. 앓가 又 高麗人 싸호로서 오라 <下 1a>
 B. 앓가 又 高麗人 싸호로서 오라 <下 1a>
 D. 又 朝鮮人 싸호로 조차 왔노라 <下 1a>
- (58) A. 제 널오던 즉재 오려 하더니 <下 1a>
 B. 제 널오던 즉재 오려 하더니 <下 1a>
 C. 제 널오던 즉재 오마 하여시니 <下 1a>
 D. 제 널오던 즉시 도라오마 하여시니 <下 1a>
- (59) A. 이제논 풀리 업수모로 <下 2b>
 B. 이제 풀리 업슴으로 <下 2b>
- (60) A. 므슴 프를 일 근심하리오 <下 3a>
 B. 므슴 풀기 근심하료 <下 2b>
- (61) A. 내 七月人 초싱애 뼈나라 <下 3b>
 B. 내 七月 초싱애 뼈나라 <下 3a>
 D. 내 七月 초싱애 썩논이라 <下 3b>
- (62) A. 내 길 조차 날회여 오라 <下 3b>
 B. 내 길흘 조차 날회여 오라 <下 3a>
 D. 내 길히서 날회여 왔노라 <下 3b>
- (63) A. 이 유무에 썩쇼미 <下 3b>

- B. 이 유무에 써시미 <下 3b>
 D. 이 글에 쁜 거시 <下 3b>
- (64) A. 편안호미사 빔소미 하니라 <下 4a>
 B. 편안흙이아 빗쓰미 하니라 <下 3b>
 D. 안락호미 갑얍이 하니라 <下 4a>
- (65) A. 닐오미 올타 <下 5a>
 B. 닐음이 올타 <下 4b>
 C. 닐음이 올타 <下 4b>
 D. 네 니르미 올타 <下 5a>
- (66) A. 내 어제 오라 <下 5b>
 B. 내 그저 어제 오라 <下 5a>
 D. 우리 어제 온이라 <下 5b>
- (67) A. 遼東 이녀귀와 모다 오라 더 쯤 여러 필 댕롤 가져 훈터 모라 오라
 — 2장 만히 더의 거리치물 니부라 <下 6ab> ('거리치물'은 전성명사)
 B. 遼東 이녀귀 와 못드라 왔노라 데 쯤 여러 필 댕이 이시니 훈터 모라
오라 — 2장 만히 더의 구제흙을 어드라 <下 5b - 6a>
- (68) A. 닐오미 올타 <下 6b>
 B. 닐음이 올타 <下 6a>
 C. 닐오미 올타 <下 6a>
 D. 니르미 올타 <下 6a>
- (69) A. 훈잔 술 먹져 마지 아니홀 짓가 <下 6b>
 B. 훈잔 술 먹어 마지 아니홀 쯤가 <下 6a>
 D. 훈잔 술 먹어 마지 호미 죠치 아니하랴 <下 6b>
- (70) A. 훈두잔 수을 머고리라 <下 7a>
 B. 훈두잔 먹자 <下 6b>
- (71) A. 店主人이 닐오던 <下 7b>
 B. 店主人이 닐오되 <下 6b>
 D. 店主人이 니르되 <下 7b>
- (72) A. 대되 一百四十兩 銀을 바도리라 <下 10a>
 B. 대되 一百四十兩 은을 바드려 하노라 <下 9a>

- (73) A. 간대로 갑슬 바도려 하노피여 <下 10b>
 B. 간대로 갑슬 ષੋ오노다 <下 9b>
- (74) A. 네 닐옴곳 올호면 — 간대로 갑슬 바도려 마라 <下 10b>
 B. 네 닐옴이 올호면 — 간대로 갑슬 바드려 마라 <下 9b>
 D. 네 니룩미 올호면 — 간대로 헛갑 ષੋ오지 말라 <下 10b>
- (75) A. 즈르미 닐오더 — 너므 바도려 말라 — 내 바른 대로 닐오리라
 — 네 一百四十兩 銀을 바도려 하거시니 <下 10b - 11b>
 B. 즈름이 닐오되 — 너모 바드려 말라 — 내 바른 대로 니룩리라
 — 一百四十兩 은을 바드려 하면 <下 9b - 10a>
- (76) A. 이제 고디시근 갑슬 너드려 닐오마 — 홍정호미 엇더하노 <下 11b>
 B. 이제 고디식호 갑슬 너드려 니룰 꺼시니 — 홍정호미 엇더하노
 <下 10b>
 D. 이제 고지식호 갑슬 너드려 니룰 꺼시니 — 홍정호미 엇더하노
 <下 10b>
- (77) A. 내 안직 네 일명호 갑슬 드로마 <下 12a>
 B. 내 아직 네 명호 갑슬 드르마 <下 10b>
- (78) A. 홍정 므차도 므던하다 <下 12a>
 B. 홍정호미 므던하다 <下 11a>
- (79) A. 꺄 셔셔 늘며 보는 사름이 닐오더 이 즈르뭇 니룩논 갑시 정히 고든
마리로다 <下 13b>
 B. 꺄 셔셔 힘힘히 보는 사름이 닐오되 이 즐음 닐으논 갑시 정히 고든
마리로다 <下 12ab>
 D. 꺄 셔셔 힘힘히 보는 사름이 니룩되 이 즈름의 니룩논 갑시 꺄장 공
번되다 <下 13a>
- (80) A. 므초더 므던하다 <下 14a>
 B. 못춤이 므던하다 <下 12b>
- (81) A. 내 닐고마 네 드르라 — 므리 도흠 구주므란 <下 16a - 17a>
 B. 내 닐거든 네 드르라 — 몰의 도쿠즘으란 <下 14b - 15b>
- △(82) A. 꺄 셔셔 기들우라 <下 18b>
 B. 꺄 셔셔 기드리라 <下 17a>

- (83) A. 내 일즉 2장 보디 아니호니 <下 18b>
 B. 내 일즉 2장 보디 아니하엿더니 <下 17a>
- (84) A. 하다가 2리 도흠 구주므란 <下 17a>
 B. 하다가 물의 도흠 구즘으란 <下 17b>
- (85) A. 네 다 예서 기들우라 <下 20b>
 B. 네 다 예서 기들오라 <下 18b>
 D. 너희 여귀 이서 기드리라 <下 19a>
- (86) A. 의논호던 엿더하노 <下 21a>
 B. 의논호던 엿더하노 <下 19a>
 C. 의논흠이 엿더하노 <下 19a>
 D. 商量호미 엿더하노 <下 20a>
- (87) A. 석냥 은을 바도리라 <下 22a>
 B. 석냥 은을 바드리라 <下 20a>
 D. 석냥 은을 바드려 하노라 <下 20b>
- (88) A. 이런 큰 갑슬 바도려커시니 <下 22a>
 B. 이런 큰 갑슬 바드려 하면 <下 20a>
- (89) A. 네 이리 간대로 갑슬 바도려커든 <下 22a>
 B. 네 이리 간대로 갑슬 바드려 하니 <下 20a>
- (90) A. 네 닐웁도 올라 이러면 내 닷돈만 더로마 <下 22b>
 B. 네 니름도 올라 이러면 내 닷돈만 덜오마 <下 20ab>
 D. 네 니름미 올하니 내 곳 닷돈을 덜미 엿더하노 <下 21a>
- (91) A. 그저 호 마래 너를 가포마 <下 22b>
 B. 그저 호 말에 네게 가프마 <下 20b>
- (92) A. 네게 포로마 <下 23a>
 B. 네게 풀마 <下 20b>
- (93) A. 슬커든 마로더여 <下 23a>
 B. 슬커든 말라 <下 20b>
- (94) A. 내 앓가 심각호니 <下 23b>
 B. 내 앓가 심각하니 <下 21a>

- (95) A. 내 고디시기 너드려 널오마 내. 니부려 ㅎ는 주리 아니라
 <下 26b - 27a>
 B. 내 고디시기 너드려 널으마 내 니브려 ㅎ는 줄이 아니라 <下 24ab>
- (96) A. 널굽 량을 바도리라 <下 27a>
 B. 널굽 냥을 바드리라 <下 24b>
- (97) A. 네 이리 간대로 바도려 ㅎ다 말라 — 네 널굽 량을 바도려 ㅎ거시니
 <下 27ab>
 B. 네 이리 간대로 바드려 말라 — 네 널굽 냥을 바드려 ㅎ면
 <下 24b - 25a>
- (98) A. 네 손덕 푼로마 <下 28a>
 B. 네 손덕 풀마 <下 25b>
- (99) A. 네 널오덕 <下 29a>
 B. 네 니르되 <下 26b>
- (100) A. 바들디면 닷량을 바도런마룬 <下 29b - 30a>
 B. 만일 씩오면 닷냥을 씩오려니 <下 26b - 27a>
- (101) A. 활 풀 지비 가 무로덕 <下 30b>
 B. 활 풀 집의 가 무로덕 <下 27b>
 C. 활 풀 집의 가 무로덕 <下 27b>
 D. 조 저 활 푼다 店에 가 무르되 <下 29a>
- (102) A. 예서 화를 지후리라 <下 32a>
 B. 예서 이 활을 짓자 <下 29a>
- (103) A. 이는 마초은 성녕이오 <下 33b>
 B. 이는 마최음 성녕이오 <下 30a>
 D. 이 맛초일 성녕이오 <下 32a>
- (104) A. 사른미 짓글휴물 크게 ㅎ는다 <下 36b>
 B. 사롬이 짓과기를 크게 ㅎ더니 <下 33a>
- △(105) A. 내 이귀와다 <下 37a>
 B. 우리 이귀여다 <下 33b>
- △(106) A. 상화소해 쁘다 <下 39a>
 B. 상화소에 쁘니라 <下 35a>

- D. 상화소에 헛다 <下 38a>
- (107) A. 의원이 닐오되 <下 39b>
 B. 의원이 닐오되 <下 36a>
 C. 의원이 닐오되 <下 36a>
 D. 太醫 니르되 <下 38b>
- (108) A. 내 어제 촌 수올 만히 머고라 <下 40a>
 B. 내 어제 촌 술을 만히 먹으라 <下 36a>
 D. 내 어지 촌 술을 만히 먹엇노라 <下 38b>
- (109) A. 食後에 머구되 <下 40a>
 B. 食後에 먹으되 <下 36a>
- (110) A. 이튿날 의원이 와 무로되 <下 41a>
 B. 이튿날 太醫 | 와 무로되 <下 37a>
 C. 이튿날 太醫 | 와 무로되 <下 37a>
 D. 이튿날 太醫와 무르되 <下 39b>
- (111) A. 오늘 아츰에 ㅈ 죽 머구니 — 은혜 잡고 샤례호리이다 <下 41ab>
 B. 오늘 아츰에 ㅈ 죽 먹으니 — 은혜 잡고 샤례호리라 <下 37ab>
 D. 오늘 아츰에 ㅈ 저기 죽 먹으니 — 감사 샤례호리라 <下 39b>
- (112) A. 상벧 말스매 닐오되 <下 43a>
 B. 상언에 니로되 <下 39a>
 D. 常言에 니르되 <下 41a>
- (113) A. 상벧. 말스매 닐오되 <下 40a>
 B. 상언에 니르되 <下 40a>
- (114) A. 우리 번지셔 든를디면 — 나 어디로니 니르디 말며 병증 무르라 — 더 병하니 너교되 <下 46a-47b>
 B. 우리 번지어 든날작시면 — 나 엇일라 니르디 말고 병증 무로라 — 더 병든 사람이 싱각호되 <下 41b-43a>
 D. 내 어질라 <下 44a>
- (115) A. 살을 일 일오기 힘 쓰디 아니하고 — 말려 닐오되 — 더답하요되
 — 간대로 뿌되 <下 47b-50a>
 B. 살을 일 일오기 힘 쓰디 아니하고 — 말려 니로되 — 더답하여 니로되
 — 간대로 쁘니 <下 43a-45a>

- D. 살을 일 힘쓰지 아니하고 — 말려 니르되 — 제 도로 니르되 — 간대
로 돈을 쓰니 <下 45a-47a>
- (116) A. 옷 니보되 <下 50a>
B. 오솔 니블썬대 <下 45a>
- (117) A. 씩도 스절 조초 하요되 — 옥으로 헛 그테 갈갈이 하니 씩요되 — 곳
사끈 거시러라 <下 51ab>
B. 씩도 또 스절을 조차 히오되 — 옥으로 씩 그테 갈구리하니를 씩오되
— 곳 사긴 거시러라 <下 46ab>
- (118) A. 돌마기 드른 <下 52a>
B. 돌마기 돌은 <下 46a>
D. 돌마기 돌은 <下 49a>
- (119) A. 거문 기즈피휘 시노되 — 빅 기즈피휘 시노되 <下 52b-53b>
B. 거문 기즈피휘를 신오되 — 흰 기즈피휘를 신오되 <下 47b>
- (120) A. 거죽 여러적 브르자쥬되 <下 54a>
B. 거죽 여러 소릿로 브르되 <下 48b>
- (121) A. 가려 하다니 <下 55b>
B. 가려 하더니 <下 50a>
D. 가려 하되 <下 52a>
- (122) A. 황호 사기를 의론호리니 <下 56a>
B. 貨物 사기를 의론하리니 <下 50b>
- (123) A. 야지 닐오되 — 도흠 구즘 분간하거라 말라 <下 57a>
B. 즈름이 닐오되 — 도흠 구즘을 분변티 말라 <下 51b>
- (124) A. 도호 은을 바도되 <下 57b>
B. 도호 은을 바드되 <下 52a>
- (125) A. 네 닐오되 <下 58a>
B. 네 닐오되 <下 52b>
C. 네 닐오● <下 52b>
D. 네 니르되 <下 54b>
- (126) A. 야지 닐오되 — 홍정 모초미 무던하다 <下 60b>
B. 즈름이 니르되 — 홍정 모춤이 무던하다 <下 54b>

- (127) A. 너 조초려니와 — 아니 폰로리라 <下 59b-60a>
 B. 너를 조초려니와 — 폰디 아니리라 <下 54b-55a>
- (128) A. 남자 어도미 어려오니라 <下 62b>
 B. 남자 엇기 어려오리라 <下 56a>
- (129) A. 옷 지소매 유여함며 — 옷 지소매 즈라디 몰함며 <下 62b-63a>
 B. 옷 지으매 남음이 잇고 — 옷 지으매 즈라디 못함여 <下 56b>
- (130) A. 너를 조차 호리라 <下 64a>
 B. 네대로 ㅎ리라 <下 57b>
- (131) A. 또 리천 어도라 <下 66a>
 B. 또 저기 니천을 어드와 <下 59b>
- (132) A. 내 아럭 드로니 — 남자 어도미 <下 66ab>
 B. 내 일즙 드루니 — 남자 어들이 <下 60a>
- (133) A. 네 널오미 <下 67b>
 B. 네 니롬이 <下 60a>
- (134) A. 선생드려 무로되 <下 70b>
 B. 先生드려 무로되 <下 63b>
- (135) A. 인시에 나라 <下 71a>
 B. 인시에 낫노라 <下 64a>
- (136) A. 오직 흥정 호미 맛당하고 <71a>
 B. 오직 買賣 ㅎ기 맛당하고 <64a>
- (137) A. 도흔 날 꼴히요마 — 네 이 스프닷셋날 나가되 <71b-72a>
 B. 도흔 날 꼴희자 — 네 이 스프닷셋날 나가되 <下 64b-65a>
 D. 조흔 날 꼴희마 — 네 그저 이 스프닷셋날 떠나 도라가되
 <下 66b-67a>

III.

앞의 자료들을 단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진다. 괄호 안의 번호는 제

2장에서 머리에 붙였던 것들이다.

꼴히다:

- A. 꼴히요마 B. 꼴희자 C. 꼴희마 (137)

ㄱ락치다:

- A. ㄱ락츄마 B. ㄱ락치마 (26)

궂다:

- A. 구주므란 B. 구즘으란/구즘으란/묘쿠즘으란 (81)(94)

- A. 구즘 B. 구즘 (123)

궂다:

- A. 가포마 B. 궂프마 (91)

거리치다:

- A. 거리치물 B. 구제흙을 (67)

궂다:

- A. 글후미 B. 궂키 (14)

나다(生):

- A. 나라 B. 낫노라 D. 난이라 (135)

너기다:

- A. 너교터 B. 생각하되 (114)

니락다:

- A. 널오미 B. 니롬을 (4)

- A. 널오미 B. 널오미 C. 널음이 D. 니락미 (22)

- A. 널오미 B. 니락미/니롬이/널음이 D. 니락미/니롬이(12)(12)(22)
(44)(55)(65)(68)(132)

- A. 널우미 B. 널음이 D. 니락미 (46)

- A. 니락샤미 B. 니롬이 (31)

- A. 널음곳 B. 널음이 D. 니락미 (74)

- A. 널음도 B. 니롬도 D. 니락미 (90)

- A. 니락논 B. 널으논 D. 니락논 (79)

- A. 널오터 B. 널오터 C. 널오터 D. 니락되/니르되 (23)(28)(58)(76)
(79)(107)(115)(125)(126)

A. 날오더 B. 날오되 D. 니룩되 (123)

A. 날오더 B. 니룩되 (9)(10)(99)(113)

A. 날오마 B. 날으마 D. 니룩마 (95)

넉다:

A. 넉고마 B. 넉거든 (81)

넉다:

A. 니부라 B. 어드라 (67)

A. 니부려 B. 니브려 (95)

A. 니보더 B. 니블전대 (116)

든리다:

A. 든틀디면 B. 든닐작시면 (114)

돌다:

A. 두론 B. 둘은 (118)

떠나다:

A. 떠나라 B. 떠난노라 (2)

A. 떠나라 B. 떠나라 D. 떠논이라 (61)

덜다:

A. 더로더 B. 더로미 C. 더럼이 D. 덜미 (15)

A. 더로마 B. 덜으마 D. 덜미 엇더하뇨 (90)

도타:

A. 도흠 B. 도흠/도쿠즘 (81)(94)(123)

뒤는니다:

A. 뒤논뇨미 B. 뒤보기 (29)

뜨다:

A. 쭈머 B. 뜸이 (41)(42)

듣다:

A. 드로니 B. 드룩니 (19)

A. 드로니 B. 듯보니 (44)

A. 드로마 B. 드룩마 (8)(77)

씩다:

- A. 씹요덕 B. 씹오되 D. 씹되 (117)

뭇다:

- A. 뭇초덕 B. 뭇초마 (80)

- A. 뭇초미 B. 뭇츨이 (127)

땡졸다:

- A. 땡궤로물 B. 땡글기롤 (18)

마초다:

- A. 마초은 B. 마츨음 D. 맛초임 (103)

말다:

- A. 마로덕여 B. 말라 (93)

먹다:

- A. 머구미 B. 머거 (32)

- A. 머구물 B. 머거/먹거든 (16)(34)

- A. 머구덕 B. 먹으되 D. 먹으되 (109)

- A. 머구덕 B. 먹음이 (50)

- A. 머고라 B. 먹으라 D. 먹엇노라 (108)

- A. 머구니 B. 먹으니 (110)

- A. 머구리라 B. 먹올이라 D. 먹으리라 (51)

- A. 머고리라 B. 먹쟈 (70)

- A. 머규물 B. 먹키기를 D. 먹이기롤 (54)

- A. 머규마 B. 먹이마 (45)

묻다:

- A. 무로덕 B. 무로덕 D. 무르되 (101)(110)

- A. 무로덕 B. 무로되 C. 무로되 D. ×(134)

- A. 무르라 B. 무로라 D. ×(114)

- A. 무르라 가져 B. 무로라 가져 D. 무르라 가쟈 (38)

- A. 무르라 가마 B. 무로라 가리라 D. 무르라 가쟈 (56)

비호다:

A. 비호라 B. 비호라 C. 비호좌 D. 비호좌 (5)

받다:

A. 바도타 B. 바드되 C. 바드되 D. 바드되 (124)

A. 바도려 B. 바드려 (75)(75)(88)(89)(97)(97)

A. 바도려 B. 회오는다 (73)

A. 바도리라 B. 바드리라 C. 바드리라 D. 바드려 향노라 (87)(96)

A. 바도리라 B. 바드려 향노라 (72)

A. 바들디면 B.C.D. ×××(100)

A. 바도련마룬 B.C.D. ×××(100)

브르짓다:

A. 브르지조덕 B. 브르되 (120)

스다:

A. 빌소미 B. 빗썩미 (64)

사기다:

A. 사픈 B. 사긴 (117)

사ㅎ다:

A. 사ㅎ논 B. 싸ㅎ논 (13)

살다:

A. 사를 B. 살을 D. 살을 (115)

설엇다:

A. 설어주물 B. 收拾ㅎ기를 (48)

쁘다:

A. 뿌더 B. 뿌니 (115)

신다:

A. 시노덕 B. 신오되 D. 신어시되 (119)

A. 시노덕 B. 신을던대 D. 신으되 (119)

실다:

A. 시로물 B. 싯기 (36)

어딜다:

A. 어디로니 B. 엇일콰 C. 어딜콰 D. 어질콰 (114)

얼다:

A. 어도미 B. 어듬이 (132)

A. 어도미 B. 엇기 (128)

A. 어듬두곤 B. 어듬도곤 (34)

A. 어도라 B. 어드콰 (131)

A. 어드라 가라 B. 어드라 가라 D. 어드라 가라 (39)

업다:

A. 업수모로 B. 업슴으로 (59)

오다:

A. 오라 B. 오콰 C. 오콰 D. 왓노라 (1)(52)(57)(62)(67)

A. 오라 B. 오콰 C. 오콰 D. 온이라 (66)

A. 오라 B. 왓노라 (67)

(cf. A. 오다 B. 오니라 (3))

음기다:

A. 음폴디니라 B. 던쿄져 흠이라 (35)

외오이다:

A. 외오요터 B. 외오터 D. 외오퇴 (7)

잇다:

A. 이쇼터 B. 이쇼터 D. 이시니 (11)

A. 씨쇼마 B. 씨시미 C. 쏘겨시 (63)

A. 자바쇼마 B. 자바실씨시니 (30)

짓다:

A. 지소매 B. 지으매 (129)(129)

짓글히다:

A. 짓글휴블 B. 짓괘기를 (104)

짚다:

A. 지후리라 B. 짓자 (102)

풀다:

A. 푼를 일 B. 하기 (60)

A. 아니 푼로리라 B. 푼디 아니리라 (127)

A. 푼로마 B. 풀마 C. 풀마 D. 푼라 너를 주마 (92)(98)

A. 푼로마 B. 풀개 학마 (53)

학다:

A. 조심호미사 B. 조심호미 D. 조심흠이 (20)

A. 조심호미 B. 조심호미 D. 조심흠이 (23)

A. 편안호미사 B. 편안흠이아 D. 安樂호미 (63)

A. 흥정호미 B. 買賣학기 (136)

A. 재계 호미 B. 재계 흠이 (40)

A. 마지 아니홀것가 D. 마지호미 (69)

A. 흥정 막차도 D. 흥정호미 (78)

A. 볼호라 B. 못호라 (24)

A. 아니호라 B. 아니호라 D. 못학엇다 (37)

A. 덕답학요덕 B. 덕답학여 니로덕 D. 도로 니룩되 (115)

A. 학요덕 B. 히오되 (117)

A. 흥정호덕 B. 흥정호미 (76)

A. 의논호덕 B. 의논호덕 C. 의논흠이 D. 商量호미 (86)

A. 가려 학더니 B. 가려 학되 (121)

A. 호리라 B. 학리라 D. 흘써시니 (130)

A. 호리라 B. 흘써시니 (47)

A. 샹혜호리이다 B. 샹혜호리라 (111)

A. 생각호니 B. 생각학니 (94)

A. 아니호니 B. 아니학엇더니 (27)(83)

A. 호마 B. 학마 (19)

A. 그리호마 B. 그리학마 (17)

A. 그리호마 B. 그리학자 (25)

A. 자게 호덕여 B. 재라 D. 자게 학라 (43)

A. 아니ㅎ똥더라 B. 아니ㅎ똥더라 D. 아니ㅎ엿더라 (2)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놓고 보면 전에 필자가 개괄적으로 관찰했던 것보다 훨씬 미세한 사실들이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老乞大의 언해들이라는 자료의 특성상 母本에 이끌린 표기를 하는 일들이 있음은 전의 拙著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그 이상의 동요 또는 다양성이라는 것을 추려내기 어렵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차이들은 단순한 표기상의 차이가 아니라 변화의 본질에 관계되는 것이 적지 않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같은 '오/우'에 관련된 변화라 하더라도, 뒤에 오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양상이나 완급이 달라지고, 또한 선행하는 어간 형태소의 차이에 따른 구별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도 문면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변화가 단계적이어서 $a > b$ 또는 $a > b > c$ 라는 공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동일한 문헌 자료에서 a와 b, b와 c 또는 a, b, c가 동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은 한 시기의 개인에게 여러 체계 또는 여러 언어 규칙이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야 할 것이다. 표현을 바꾸어 말한다면, 도식적으로는 계기적일 수 밖에 없는 어형 또는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들에 의하여 성립되는 이질적인 문체들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언어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개별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관찰을 전개해 보자.

첫째는 의도형 '오/우'의 원순성 이행 현상의 제약성에 대한 재확인이다. 이미 필자가 전에 확인했듯이 이 현상은 어미 '라' 및 '디'와의 결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음운 환경이 유사한 명령형의 '오라', '주라' 같은 형태가 끝의 어미를 '와'로 바꾸는 일 같은 것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61)에서 보는

A. 떠나라 B. 떠나라 C. 떠는이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상 '오/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와'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의 단어에서 음운규칙에 의해서 '와'가 유도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형적이기는 하지만, '와'가 의도형을 담은 형태로 인

식되어 ‘빠나’와 같은 어간 뒤에서도 존재할 수 있었다 해야 할 것이다.

‘오/우’의 원순성이 다음 음절로 이행하는 일이 왜 ‘라’와 ‘ㄷ’의 연계하에서만 일어나고 다른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았는가는 밝히기 힘들다. ‘흔’, ‘홀’, ‘흐논’과 같은 관형사형의 경우에는 옮겨갈 다음 음절이 없으니 까 그런 변화에 가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였겠지만,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 변화에 동참하지 못할 상황적 이유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가능성만 가지고 말한다면 약속법의 ‘머구마’에 이어 ‘머그파’ 같은 것이, 미래형의 ‘호리라’에 이어서는 ‘흐리라’ 또는 ‘흐뤄라’ 같은 것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오다’, ‘오라’ 이외의 경우의 의도형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원순성의 상실에 이어져 소위 매개모음의 ‘으/으’와 동질의 것이 됨으로써 의도형 자체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데, 동명사형의 ‘음/음’의 경우 ‘하다’ 동사의 ‘흠’만은 종시 일관 적어도 노걸대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것이 이채롭다.

- A. 조심호미사 B. 조심호미 D. 조심흠이
 A. 조심호미 B. 조심호미 D. 조심흠이
 A. 편안호미사 B. 편안흠이아 D. 安樂호미
 A. 마지 아니홀것가 D. 마지호미
 A. 흥정 무차도 D. 흥정호미

둘째는 원순성의 이행 과정에 대한 인식의 정밀화다. 의도형의 원순성이 결과적으로는 다음 음절로 이행한 것이 되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중간 단계가 있다 해야 옳을 것이다. 일종의 순행동화가 일어난 다음에 원래의 ‘오/우’에 있던 원순성이 아마도 반작용으로서의 이화작용에 의해서 제거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용례가 많은 ‘니르다’의 경우를 놓고 이 문제를 살펴 보자.

- 가) 유형: A:a B:a C:a D:c
 A. 널오더 B. 널오더 C. 널오더
 나) 유형: A:a B:b D:c
 A. 널오더 B. 널오되 C. 니르되

다) 유형: A:a B:c

A. 날오되 B. 니르되

가)유형은 A에서 C에 이르기까지 원 모습을 유지하다가 D에 이르러 원순성 이행이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숫적으로도 압도적인 9개의 예가 확보되어 있다. 각단계의 번역에 있어 앞의 母本을 참조할 수 있었기에 의고적인 표기 경향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이 구형의 목수가 언어 현실을 떠난 비현실적인 존재라고 물리칠 것은 아니다. 노걸대의 경우와는 달리 박통사의 언해에 있어서는 이른바 번역박통사라는 모본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질서에 속하는 '날오되' 류의 표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형태가 이 시기에 있어서도 허용되는 한 형태였다고 보아야 함은 전날의 구저에서도 지적했던 바 있다. 필자가 여기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나)유형의 것이다. B 즉 노걸대언해의 단계에 끝 음절이 '되'로 변화하기는 하였지만, 앞의 부분은 '날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니르되'의 경우 이 부류의 예가 단 하나에 그친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른 단어들에서 '날오되'에 해당하는 형태를 B의 단계에서 찾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묻다' (問)의 경우에도

무로되 무로되 무로되 무르되

와 함께

무로되 무로되 무르되

가 존재함을 볼 수 있거니와, '신다'의 '시노되', '씩다'의 '씩오되' (>씩되), '흐다'의 사역형에서 보는 '히오되'가 B의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날오되', '물오되'의 '오'가 '되'를 동화시켜 '되'를 결과시켰으면서도 '오'는 아직도 '오'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B의 단계에서 이미 '니르되'를 보이는 예가 4개나 있다. '오'가 이화작용에 의하여 원순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이 형태까지, 변화의 세 단계를 대표한다고 할 세가지 모습이 같은 B 즉 노걸대언해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가 단계적으로 어형들을 정연하게 교체시킨다는 우리의 교과서적 신념을 배신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엄연한 사실임을 우리는 다른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앞에 단어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에서 ‘덜다’와 ‘풀다’의 약속법 형태들의 변화례들을 살펴 보자.

A. 더로마 B. 덜오마

A. 푼로마 B. 풀마

‘A. 가포마 B. 갑프마(91)’에서 보듯이 약속법의 ‘오마’의 ‘오’의 원순성 상실은 ‘으마’를 결과하게 되어 있으니, ‘더로마’ 다음의 어형은 ‘덜오마’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었으나, ‘ㄹ’ 아래에서의 ‘으’의 소멸이라는 규칙까지를 추가 적용한 결과로서의 ‘풀마’(<* 푼르마 < 푼로마)까지가 같은 문헌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두 단계를 대표하는 두개의 다른 어형이 같은 사람의 머리 속에 경쟁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보여 주는 유사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모음으로 끝난 어간, 예컨대 ‘꺾히-’와 같은 것 다음에서도 ‘오마’의 ‘오’가 원순성을 벗고 ‘으’ 또는 ‘으’를 실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기대되지만, 그 ‘으’ 또는 ‘으’가 탈락한 ‘꺾히마’의 어형만이 문헌에는 실재한다. ‘ㄹ츄마 > ㄹ츄치마, 머규마 > 먹이마, 호마 > 호마’가 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95)의 예 ‘A. 널오마 B. 널오마 D. 니르마’의 경우는 ‘더로마’, ‘푼로마’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차이를 가진다. ‘널오마’에서 ‘널오마’에 이르는 과정은 ‘더로마’에서 ‘덜오마’가 나온 과정과 같지만, 그로부터 ‘널마’가 생겨나지는 못하였다. 음운론적으로는 ‘으’의 탈락이 있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널오마’의 ‘널으’는 어간 ‘니르/니르’의 간섭으로 ‘으’의 상실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오되 > 오되 > 으되’와 유사한 3단계의 변화 과정을 우리는 ‘오라 > 으라’ 쪽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만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료에서는 그것을 실증할 수가 없다. ‘오되’형의 용례에 비하여 ‘오라’형의 용례가 빈곤하기 때

문에 충분한 관찰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혹 다른 문헌들에서는 ‘오랴’라는 중간 단계가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4)의 ‘뽀호랴 > 뽀호랴’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ㅎ다’ 동사가 워낙 특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반적인 증거를 삼을 수는 없다. ‘호랴’는 그 다음 단계에서도 ‘호랴’를 보일 뿐, ‘ㅎ랴’와 같은 발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논의될 것은 의도형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자리에서의 ‘오, 우’의 동요이다. 그것은 단어의 제2음절 이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모음은 어간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고 조사나 어미의 일부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변화라는 표현을 피하고 ‘동요’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의도형과 관계된 변화에 있어서는 의도형의 ‘오/우’가 원순성을 상실하여 ‘으’ 또는 ‘으’가 그 자리에 대신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지금 말하는 동요에 있어서는 그 움직임의 방향이 가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른 것이다. 즉, ‘오’나 ‘우’였던 것이 ‘으’ 또는 ‘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본래 ‘으’나 ‘으’였던 것이 ‘오’나 ‘우’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 정반대의 방향을 가진 두 움직임이 하나의 원인에서 생겨난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舊著에서도 일단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했었으나, 거기서는 이 현상이 가역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성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역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 현상이 이른바 음운변화와는 구별되는 현상임을 말한다. 음운변화란 일정 조건하에서의 일정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반대 방향으로의 회귀 같은 것을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 우’와 ‘으, 으’의 가역적 동요를 가능하게 한 제일의 요인으로 필자는 ‘오되/오되/으되’의 공존을 꼽고 싶다. ‘오’와 ‘으’, ‘우’와 ‘으’의 구별성을 흐리게 하는데 이 공존 현상이 공헌했겠기 때문이다.

A. 무르라 B. 무로라 (114)

A. 무르라 가져 B. 무로라 가져 (38)

위의 두 ‘무르라’는 외형상으로는 같지만 기능을 달리하는 두개의 다른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단계에서는 다같이 ‘무로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예에서의 '무로라'의 등장에는 '-오려'형의 '오'에 영향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 앞의 명령형의 '무르라 > 무로라'에 있어서는 의미상으로 연상을 일으킬만한 대상도 없는 것이다.

(39)의 'A. 어드라 가라 B. 어드라 가라 D. 어드라 가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도라' 또는 '어두라'의 생성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무로라'의 등장은 우성적이며 일과적인 존재에 그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동요를 입은 어형이 모두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친 것은 아니고, 얼마간의 것들은 후세의 어형들에 연결된다. 이러한 승리를 얻은 어형들은 대개 언어 체계의 어느 다른 動因에 의하여 지원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현대어의 '기다리다'에 해당하는 중세어의 동사는 '기들우다'와 '기드리다'란 쌍형의 경쟁형을 가지면서 전자가 우세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역전된 데에는 '오, 우'의 동요가 일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2) 기들우라 기드리라 기드리라 기드리라

(85) 기들오라 기들오라 기드리라 기드리라

(85)의 둘째 항 '기들오라'에 '들'이 '드'로 교체된 데에 '기드리라'로의 역전의 발판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35)의 '일후물 > 일흠을'의 교체는 또다른 성질의 것이겠다. 동명사가 '오/우'를 포함한 '음/음'의 형태를 보임에 반하여 전성명사는 '흠/음'을 보여 구별됨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 또는 *일후-라는 동사가 활동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성명사의 일반 형태에의 유추라는 압력이 '오/우'의 동요에 의해서 '일흠'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서르 > 서로', '너므 > 너모'로 대표되는 일련의 부사 형태의 통일은 겉에서의 움직임의 방향은 다르지만, '오/우'의 동요가 유추적 통일을 재촉했다는 점에서는 앞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조격의 조사는 본래 '으로/으로'이었던 것인데, '오'의 역행 동화로 '오로'(드물게 '우로')를 보여, 이 새 형태가 본래의 '으로/으로'에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나, 도전자 쪽을 누르고 '으로'로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 것도

같은 힘의 작용의 결과라 할 것이다.

IV.

문헌에 대한 연구가 試料를 표본 채취하는 차원을 지양하고 총체적인 검증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명제를 위해 의도형의 '오/우'의 붕괴 문제를 다시 논의한 것이 이 글을 낳았다. 문헌의 문면 전체가 전산 입력되는 시대를 맞아 어휘 목록, 형태소 색인이 정리 간행되는 것이 요청되거나, 노걸대의 경우와 같이 시대를 따라 여러번의 언해를 거친 문헌들에 대해서는 시간의 축을 따라 각 사항별로의 추적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한 본보기로 의도형의 '오/우'의 경우를 다시 거론하게 된 것인데, 네 개의 문헌에 대하여 관련 어형들을 빠짐없이 검증하여 제시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다. 필자의 취급 소홀로 하여 누락된 것이 없다 할 수 없으나, 중복 출현하는 것까지 모두 거두어 담도록 하였다.

그것을 다시 단어별로 분류하고 또 어미의 종류와 변화 유형에 따라 세분해 놓으면 '오/우'의 사용 실태 및 그 붕괴 소멸 과정을 한 눈에 부감할 수 있게 된다. 어느 것은 풍부하고 어느 것은 희소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불균형은 노걸대라는 문헌 내용으로부터 오는 제약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A의 단계 즉 번역노걸대에 있어서는 의도형의 형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B 이하에서는 심한 흔들림을 보이게 되지만, 그 흔들림이 일률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크게는 '오/우' 다음에 오는 형태소의 차이에 따라 갈리게 되는데, '-오라', '-오디'형 이외의 경우 즉 '-을, -은, -음', '-오리라, 오니라', '-오려', '-오마' 등의 '오/우'는 B의 단계에서 거의 모두 소멸한다. 다만, '하다'의 동명사형 '흠'만은 끈질기게 D의 단계에까지 잔존한다.

반면에 '-오라', '-오디'형은 독특한 중간 단계를 보이며 상당 기간 존속한다. '-으랴', '-으되'의 결과에서 외견상 '오/우'의 원순성이 다음 음절로 이행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은 두 단계의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먼저 '오/우'가 '라'와 '디'를 순행 동화시켜

‘과’, ‘되’를 결과시키고 난 다음에 앞의 ‘오/우’가 이화작용에 의하여 원순성을 상실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변화란 백년이고 이백년이고를 격하여 뒤에 와서 보면 정연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지만,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논리적으로 두개 또는 세개의 다른 단계에 속하는 어형들이 실제로는 같은 개인의 언어, 같은 문헌의 문면에 공존한다는 사실의 확인을 수확으로 들 수 있겠다. 교과서적으로는 변화란 신형에 의한 구형의 대체이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 신구형은 경쟁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상호의존적인 것과 같이 변화라는 것도 홀로 유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화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서는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의도형의 ‘오/우’의 원순성 상실은 스스로 의미 기능을 등에 지지 않은 단순한 음운론적 동요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그것들과 함께 진행되었던 것이다.

지금과 같은 작업은 노걸대라는 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변화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겠거니와, 노걸대와 나란히 계기적인 언해를 거친 박통사에 대해서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필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